

# 중국의 선장본 보급과 그 배경

오키 야스시(大木 康) \*

1. 들어가며
2. 선장의 탄생과 보급에 대한 학설
3. 선장본 보급의 시작
4. 명대의 출판 상황
5. 장정법 변화의 배경

##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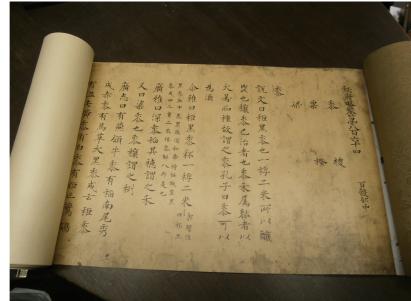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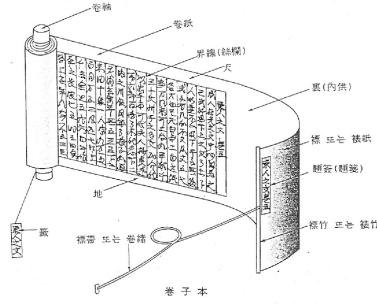
중국의 서적은, 처음에는 목간의 형태였다가 종이가 발명되면서 卷子本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처음 종이를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긴 형태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일부러 옆으로 이어 붙여 권자본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것은 책이라는 것은 긴 것이며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라는 목간 시대의 서적 형태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후고 唐에서 五代 그리고 송에 이르러 인쇄술이 발명·보급된다. 인쇄에 사용되는 판목 또한 목재의 제약으로 인해 길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막 인쇄되었을 때는 그렇게 크거나 길지 않았다. 처음에는 돈황에서 출토된 ‘咸通 9년(868)’의 연호가 있는 「金剛般若波羅蜜經」과 같이 인쇄된 종이를 옆으로 길게 이어 붙여 권자본의 형태로 만들었다. 이것 또한 서적이라는 것은 옆으로 긴 권자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매우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

\* 일본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교수.



〈그림 1〉 목간



〈그림 2〉 권자본

그러나 송대에 들어와 서적의 인쇄가 점차 보급됨에 따라 인쇄된 종이를 한 장 한 장 옆으로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철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권자본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 나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적의 어느 한 부분을 찾고 싶을 때는 권자를 전부 펼쳐 보지 않는 한 그 곳을 찾을 수 없다는 결점이 있었다.

권자본의 읽기 불편하다는 결점은 이전부터 의식되고 있었던 듯 그 해결책도 모색되었다. 그 하나는 긴 종이를 차례로 접어 두꺼운 종이의 앞표지와 뒷표지를 붙이는 ‘折本’의 형태이다(불경이 오늘날까지도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절본은 ‘여기’라고 펼치고 싶은 곳을 펼치는 데 권자본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권자본이나 절본이나 종이를 길게 이어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손되기 쉬웠다.

시대의 선후는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일본에 현존하는 唐鈔本(唐代 중국에서 만들어진 古寫本) 중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이 적다는 것도 권자본이 파손되기 쉬웠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에 반하여 처음부터 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던 송각본은 일본에 현존 하는 것이라도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유지와 보존이라는 점에서 책자형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것으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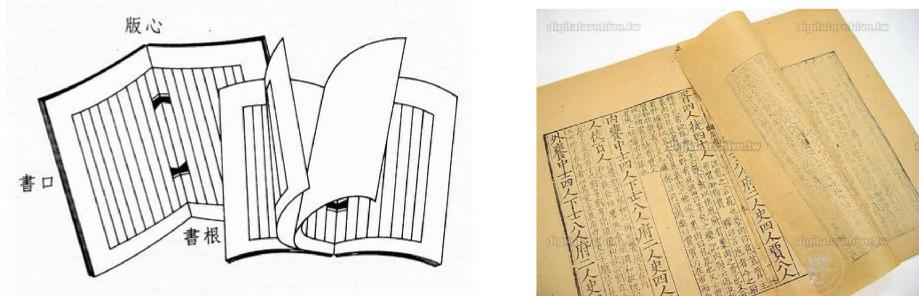


〈그림 3〉 절본

이렇게 하여 드디어 책자형이 탄생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보통 중국의 오래된 간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판식(인쇄면의 형식)은 이 때 시작되었다. 한 장의 종이(판목)에 장방형의 광곽을 만들고 그 중심에 판심을 마련한다. 판심은 종이를 둘로 접을 때 접는 부분이 되며 둘로 접을 때 중심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미가 있다. 물론 구체적인 판식은 다양한 형태지만 광곽이 있고 판심이 있는 것이 송대 인쇄술의 보급 아래 중국 서적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판식은 송대 이후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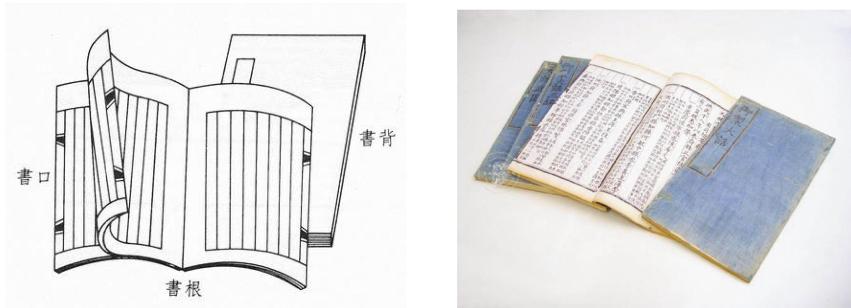
그러나 책자형이라고 해도 그 제본 방법을 살펴보면 송대의 인쇄가 보급된 시점에 곧장 현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서적의 장정인 ‘선장(線裝)’의 형태가 된 것은 아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판의 한 면(一葉, 한 장)의 인쇄된 면을 한쪽으로

하여, 접은 곳이 안쪽이 되도록 접어(계곡접기, 谷折り) 각 옆을 차례로 겹쳐 쌓아 접힌 곳의 아래 부분에 풀칠하여 다음 장과 이어 붙여서 마지막에 내용물을 둘러 싸며 표지를 붙인 장정이었다. 이러한 장정을 호접장이라고 한다. 호접장에서는 책을 펼쳤을 때 인쇄된 판면 그대로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장을 다 읽은 후, 다시 한장을 넘기면 거기는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은 흰 종이이며 또 한장을 넘겨야 다음 장에 이른다. 인쇄된 각 장이 판심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펼쳐져 있어 그 상태를 나비에 비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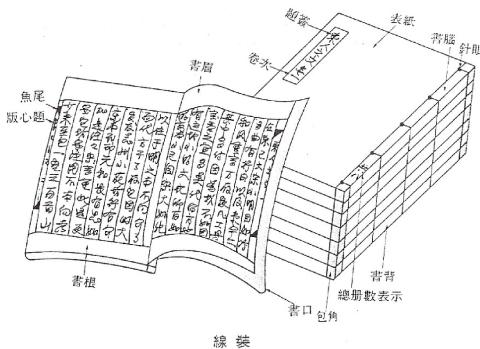
〈그림 4〉 호접장

송대의 서적은 호접장이었지만 원대 무렵에 또 다시 새로운 장정법이 나타났다. 포배장이 그것이다. 포배장은 인쇄한 면을 바깥쪽으로 하여 반을 접어(山折り) 차례로 쌓고, 구멍을 뚫고 나서 종이를 꼬아 만든 끈으로 가고정한 후에 종이의 절단 부분을 재단해 풀로 표지를 붙이는 장정법이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인쇄면을 바깥으로 향하게 접는 방법이 나왔다. 포배장은 호접장에서 선장으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장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호접장에서는 한 장 읽은 후에 폐이지를 두 장 넘기지 않으면 다음장을 읽을 수 없었는데, 인쇄면을 밖으로 접음으로써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다. 명대에 편찬 된 거질의 類書인 『永樂大典』 그리고 청대의 『四庫全書』 등의 장정에도 이 포배장이 쓰였다.



〈그림 5〉 포배장

이상에서 중국 서적의 장정법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피었다. 이제부터는 ‘선장’이라는 장정법이 언제 나타나 언제 보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그림 6〉 선장

## 2. 선장의 탄생과 보급에 대한 학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선장은 명대 중기부터 활발히 제작되었다고 한다. 먼저 나가사와 키쿠야(長澤規矩也)의 「支那書籍小史」에서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실로 철한 장정, 소위 선장본은 필시 명의 隆萬 이후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嘉靖 시대까지는 민간 서점의 간본에 포배장을 한 것이 많다.<sup>1)</sup>

라고 하였다. 隆萬은 隆慶(1567~1572)과 萬曆(1573~1620) 연간이다. 같은 저자의 「중국의 장정과 종이(支那の裝訂と紙)」에서도

선장본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명의 만력 무렵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포배장의 책등 부분처럼 파손되는 일이 없고 重裝에 용이하여 이전의 호접장의 책도 개장하여 선장으로 바꾼 것이 대부분이다.<sup>2)</sup>

라고 하였다. 陳國慶의 『漢籍版本入門』 제4장 「서적 장정의 발전(書籍の裝訂の發展)」과 「線裝」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책에 선장을 쓰는 것이 송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가 될 문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에 따르면, 대개 명의 중엽 즉 15 세기에 이미 선장이 존재하였고 누군가가 이 방법을 채용하여 청대 초에 이르러 매우 성행하게 되었다.<sup>3)</sup>

확실히 선장(이라기보다는 실로 묶은)한 서적은 보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李致忠의 「敦煌遺書中的裝幀形式与書史研究中的裝幀形制」에서는 銀朝에서 발견된 문헌의 장정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sup>4)</sup> 그 중 『佛說地藏菩薩經』(S5531), 『金剛般若波羅蜜經』(S5534) 등 실로 묶여진 서적의 존재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북송에서부터 남송에 걸쳐 활동한 張邦基의 『墨莊漫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長澤規矩也, 1992 「支那書籍小史」『長澤規矩也著作集』 권7, 汲古書院.

2) 長澤規矩也, 1992 「支那の裝訂と紙」『長澤規矩也著作集』 권7, 汲古書院.

3) 陳國慶(澤谷昭次 譯), 1992 「書籍の裝訂の發展」·「線裝」『漢籍版本入門』, 研文出版.

4) 李致忠, 2012 「敦煌遺書中的裝幀形式与書史研究中的裝幀形制」『昌平集』, 上海古籍出版社.

內翰 王洙(자 原叔)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적의 제본에는 粘葉이 제일이다. 조금 지나면 빠지거나 너덜너덜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순서를 찾아가면抄錄할 수 있다. 망가진 서적을 손에 넣을 때마다 이 방법으로 완전한 상태를 얻을 수 있었다. 縫續의 경우에는 몇 해 지나면 끊어져 버려 순서를 알 수 없게 된다. 董氏의 『繁露』 몇 책을 입수했을 당시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간절히 부탁하여 일년 남짓 읽고는 내용을 궁구하여 순서대로 묶어서 비로소 완전히 원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봉궤의 폐단이다.”<sup>5)</sup>

‘점엽’은 이른바 호접장이며 ‘봉궤’는 실로 묶은 것이다. 그러나 이 봉궤가 세 월이 지나면 실이 끊겨 순서가 훌어져 버린다는 것은 후에 나타난 선장에는 맞는다고 할 수 없다. 선장의 경우 실로 철하기 전에 우선 종이를 꼬은 끈으로 각 액을 고정하기 때문이다. 돈황에서 출토한 서적 그리고 『墨莊漫錄』에서 말하는 ‘縫續’는 확실히 실로 철하는 서적의 장점이지만 오늘날 공책 등을 묶는 방법에서 보이는 것처럼 종이를 직접 실로 철하는 형식으로 후대의 선장과 반드시 같은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목장만록』에서 말하는 ‘봉궤’가 선장이었다고 해도 당시의 인식으로는 장방기의 말대로 점엽이 더욱 중시되고 있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선장이 이 시대에 나왔다고 해도 이 당시에는 보급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니, 탄생과 보급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楊永德의 『中國古代書籍裝幀』에서

선장책은 五代에 시작되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명대 중기에 비로소 성행하게 되면서 청대에 그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이다.<sup>6)</sup>

라는 의견으로 귀결될 것이다.

5) 張邦基, 『墨莊漫錄』 卷4 “王洙原叔內翰嘗云, 作書冊粘葉爲上, 久脫爛, 苛不逸去, 尋其次第, 足可抄錄, 屢得逸書, 以此獲全. 若縫續, 歲久斷絕, 卽難次序. 初得董氏繁露數冊, 錯亂顛倒, 伏讀歲餘, 尋繹綴次, 方稍完復, 乃縫續之弊也.”

6) 楊永德, 2006 『中國古代書籍裝幀』, 人民美術出版社.

### 3. 선장본 보급의 시작

선장의 장정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명대 중기 이후의 일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 증거를 물으면 여러 학자들이 확실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소소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일본의 내각 문고에는 원나라 至治 연간(1321~1323)에 福建에서 간행된 통속적인 역사 소설이 전하고 있다. ‘全相平話五種’이라는 제목으로 「新刊全相平話武王伐紂書」·「新刊全相平話樂毅圖齊七國春秋後集」·「新刊全相秦併六國平話」·「新刊全相平話前漢書續集」·「至治新刊全相平話三國志」라는 다섯 종의 역사 이야기 책이 그것이다. ‘全相平話’란 전 페이지에 삼화가 들어있는 통속 역사 소설이라는 뜻이다. 제일 처음의 「무왕벌주서」는 周의 武王이 殷의 紂王을 멸하는 이야기이다. 「칠국춘추후집」은 춘추시대, 「진병육국평화」는 전국시대, 「전한서속집」은 전한시대 그리고 「삼국지」이다. ‘平話’는 ‘評話’라고도 하며 역사물의 講談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는 講釋師가 구연하는 역사 이야기를 문자로 기록한 작품이다. 「전상평화」는 모두 짧은 작품(예를 들어 「무왕벌주서」는 전부 42장, 제일 긴 「삼국지」가 상중하 3권으로 나뉘어져 약 140장)이며 정말에 장편 작품으로 완성한 「삼국지연의」 등의 선구적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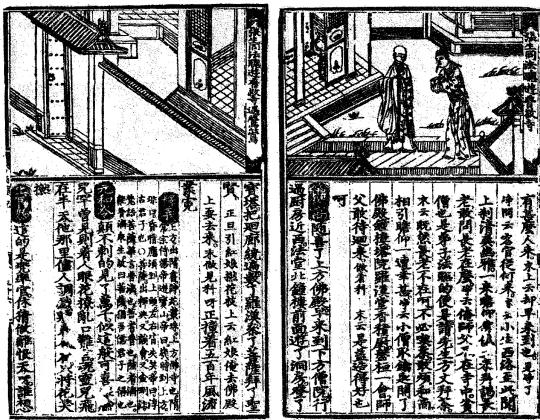
〈그림 7〉 「至治新刊全相平話三國志」

全相의 相은 삽화를 의미한다. 즉 전 페이지에 삽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선전문구이다. 이 서적은 이른바 上圖下文의 형식으로 위에는 그림이 아래에는 문자가 있다(그림 7). 그 그림은 한 장의 우측과 좌측을 합하여 하나의 그림이 된다. 그것은 곧 이 서적이 원래 호접장의 형태로 장정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선장의 형태처럼 본문 내용을 바깥쪽으로 해서 한가운데를 둘로 접을 경우 하나의 그림이 좌우 양측으로 나뉘어져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면 그림의 반쪽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하나의 그림이 끊기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문자뿐인 서적이라면 호접장이어도 선장이어도 내용을 읽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이 경우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원래 호접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내각 문고의 「전상평화」는 현재 선장본으로 개장되어 있어서 그림이 앞뒤로 나뉘어진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1927년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支哲文研究室에서 영인한 「전상평화」는 원대 간행 당시의 형태를 복원하고자 하여 호접장과 같은 제본으로 복제되었다.

마찬가지로 삽화가 들어있는 명대 弘治 연간(1488~1505)에 간행된 『奇妙全相註釋西廂記』는 「전상평화」와 같은 상도하문의 형식이지만 이쪽은 판심이 바깥쪽에 있어, 펼치면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그림 8). 즉 앞 장의 안쪽과 다음 장의 바깥쪽을 합쳐서 하나의 그림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이 당시 이미 호접장이 아니라 선장(혹은 포배장)을 전제로 하여 판목이 설계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것은 원의 지치 연간부터 명의 홍치 연간 사이에 장정 방법이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8〉『奇妙全相註釋西廂記』

그런데 이상에서 살핀 바, 송대부터 금·원대까지의 서적은 기본적으로 호접장이었지만 현재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송원판 서적은 호접장이 아닌 선장의 형태로 개장되어 있다. 『明史』의 「藝文志」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正德 10년 大學士 梁儲 등이 內閣과 東閣 장서의 남은 것들을 검사하기를 청하여 原管主事 李繼先 등에게 차례로 보수할 것을 명했다. 그 전에 秘閣의 서적은 모두 송원의 유물로 정미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두 거꾸로 접혀있는 장정이며 四周가 밖을 향하고 있었다. 벌레와 쥐도 손상시킬 수 없었다.<sup>7)</sup>

1515년(正德 10) 무렵 명의 궁정에 있던 서적을 보수했다는 기록인데 후반 부분 즉 송원의 서적은 장정에 있어서 종이의 접는 방법이 (선장과) 반대이며 광곽의 좌우가 밖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호접장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선장이라면 판심 부분이 서적의 바깥쪽으로 나오므로 蟲損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호접장의 경우는 서적의 바깥쪽은 종이 가장자리의 흰 부분이므로 충해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단 호접장과 포배장은 풀을 사용하므로 풀을 좋아하는 벌레가 생긴다는 견해도 있다). 이 문장 즉 '모두 거꾸로 접혀있는 장정이며'라는 부분은

7) 『明史』「藝文志」“正德十年，大學士梁儲等請檢內閣並東閣藏書殘闕者，令原管主事李繼先等次第修補。先是，秘閣書籍皆宋元所遺，無不精美，裝用倒摺，四周外向，蟲鼠不能損。”

정덕 연간에 이미 호접장이 희귀해져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修補’는 어쩌면 호접장의 책을 선장으로 개장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宮內廳 書陵部 図書寮文庫에 소장된 송대 간행의 『重廣分門三蘇先生文粹』의 말미에는 ‘正統丙寅孟秋重裝于金谿義塾’이라는 묵서가 있다. ‘正統丙寅’은 정통 11년(1446)이다. 현재 볼 수 있는 장정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이 때 호접장에서 선장 혹은 포배장으로 개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趙前의 「明代書籍的裝幀形式」에 따르면 1506년(正德 元)에 司禮監에서 출판한 『少微通鑑節要外紀續編』, 1511년(正德 6)에 간행된 『大明會典』은 모두 선장이라고 한다.<sup>8)</sup> 대체로 이즈음에 선장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기는 늦지만 何光遠의 『鑑誠錄』 長塘鮑氏 刊本에 붙어있는 ‘康熙乙酉十月朔汪士鋐記’라는 제목의 「識語」에는 ‘明萬曆元年秋七月既望重裝于天籟閣’이라는 문자가 보이는데 어쩌면 이 또한 선장으로의 개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송원판의 대부분이 선장으로 개장되어 있다는 점은 명대에 시작된 호접장에서 선장으로의 흐름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도 호접장으로 장정된 서적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대만의 고궁박물원에 소장된 1229년(宋 紹定 2) 李埴壽州 간본의呂本中『童蒙訓』이 호접장이다.<sup>9)</sup> 『靜嘉堂文庫宋元版圖錄』에 따르면, 남송 초기에 간행되고 남송 전기에 改修된 『吳書』와 남송대에 간행된 『太醫張子和先生儒門事親』 모두 호접장이다.<sup>10)</sup> 그 밖에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南宋紹興間刻元印本 『後漢書補志』, 하버드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宋福州官學刻本 『西山先生真文忠公讀書記』, 콜롬비아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元刻元明遞修本 『玉海』 등이 호접장이다.<sup>11)</sup> 또한 『中華再造善本』 등도 원래의 장정대로 만들고 있어 호접장

8) 趙前, 2003 「明代書籍的裝幀形式」『明本』, 江蘇古籍出版社.

9) 曾紀剛·蔡承豪 主編, 2013 『古籍与密檔案藏圖書文獻珍品』, 台北故宮博物院.

10) 靜嘉堂文庫 編, 1992 『靜嘉堂文庫宋元版圖錄』, 汲古書店.

11) 盧偉, 2013 『美國圖書館藏宋元版漢籍研究』, 北京大學出版社.

이었던 것은 호접장으로 만들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折本이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호접장의 비율은 상당히 적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목록학에서는 판식에 대해서는 광곽이나 판심의 형식, 행수나 자수 등 세세하게 논하지만, 장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장정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야스에 아키오(安江明夫) 씨가 「封綴裝의 발명과 발전(袋綴じ裝の發明と發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sup>12)</sup> 선장과 포배장 같은 봉철장이 발명된 것은 “한쪽 면만 글씨가 쓰인 것의 이면지 사용에 유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스에씨의 설이다. 앞면에 무언가 쓰여 있는 종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안쪽으로 접어 안 보이게 하는 봉철장이 편리하다고 하는 것이다. 경청할 만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야스에씨는 분명한 사례를 들면서 이면지 사용을 논증하고 있지만 그 사례가 매우 적다. 이면지를 이용해 시범 인쇄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현존하는 서적에 한정해 보면 한쪽 면에만 인쇄되어 있는 것(뒷면은 백지)이 대부분이다.

#### 4. 명대의 출판 상황

송대에 인쇄술이 보급되어 다양한 서적이 간행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도서사, 출판사는 그대로 일직선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현재 남겨진 자료에서도 명대의 가정·만력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송부터 명말에 이르기까지의 출판 상황을 수량으로 나타내 보면, 우선 楊繩信

12) 安江明夫, 2014 「袋綴じ裝の發明と發展」『汲古』 65.

13) 자세한 내용은 大木 康, 2004 『明末江南の出版文化』, 研文出版 및 大木 康, 2009 『中國明末のメディア革命』, 刀水書房 참조. 두 책 모두 한국어 번역판이 있다. 전자는 오키 야스시(노경희 옮김), 2007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출판이며 후자는 오키 야스시(고인덕 옮김), 2013 『중국 명말의 미디어 혁명』, 연세대학교출판사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 周保雄의 번역으로 上海古籍出版社에서 발간된 중국어판도 있다.

이 쓴 『中國版刻綜錄』을 모집합으로 하여 송·원부터 명 말까지 간행 연대를 아는 것에 한해 대략적으로 연대별 수량을 세어본 결과가 다음과 같다.<sup>14)</sup>

〈표 1〉 송~명말의 출판 상황

시기		간행 수량
宋	960~1279	362
金·元	1115~1368	280
明(洪武~正德) (嘉靖~隆慶)	1368~1521 1522~1572	433 701
(万曆~泰昌) (天啓)	1573~1620 1621~1627	973 114
(崇禎)	1628~1644	231
합계		3,094

이것을 보면 송부터 명말까지의 출판물 수량 3,094점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2,019점이 명말의 가정·만력부터 승정 연간에 이르기까지의 약 100년 동안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명의 가정·만력기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사람들도 의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예를 들어 1592년(만력 20)에 진사 謝肇淛가 쓴 「求書」 항목에서는

최근에 별난 서적이 연달아 나와 이것저것 죄다 간행되고 있다. 옛 집의 벽에 발라져 있던 것도 있고, 호사가의帳 속에 있던 것도 있으며, 東觀(후한의 궁중 도서관)의秘書, 昭陵에殉葬된 것(당태종의 무덤에 王羲之의眞蹟을 비롯한 도서 문물이 수장되었다)도 있으며, 傳記를 모은 것, 혹은抄錄한 나머지도 있지만 그 속에 근거 없는 오류, 위조품 등이 절대로 없다고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는가.<sup>15)</sup>

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즉 만력 시대에는 '별난 서적이 연달아 나와 이것저

14) 楊繩信, 1987 『中國版刻綜錄』,陝西人民出版社.

15) 謝肇淛, 『五雜俎』 권13, 「求書」 “近代異書輩出, 削刪無遺. 或故家之壁藏, 或好事之帳中, 或東觀之秘, 或昭陵之殉, 或傳記之裒集, 或鈔錄之殘曇, 其間不準之謬, 阮逸之贗, 豈能保其必無.”

것 죄다 출판되고 있다'라며, 출판이 활발해 졌기 때문에 이전이라면 도저히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별난 서적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조제는 이렇게 나온 서적에 오류나 위조품이 없을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당시 서적의 양과 함께 그 종류도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삼국지연의』, 『수호전』 등 장편의 백화소설들이 끊임없이 간행되는 것은 확실히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만력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그 변화가 명말에 돌연히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송대와 금·원, 명·홍무부터 정덕 연간의 수치를 집중적으로 비교해 보면, 명의 전기와 중기의 200여년 사이에 송대 300년, 금·원 약 200년을 상회하는 서적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정 이후의 변화가 유난히 큰 극적인 변화인 것은 확실하지만, 명대 전기와 중기에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적의 간행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장'이라고 하는 장정도 출현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서적의 간행량의 증가와 선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 5. 장정법 변화의 배경

여기서 다시 호집장과 포배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호집장의 장정에 대해서 엔도 테이노스케(遠藤諦之輔)는 『古文書補修六十年』의 「粘葉裝」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粘葉裝은 첩을 만드는 최초의 형태이며 중국에 도래한 최초의 장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본 방법을 서지학계에서는 호집장이라고도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용지 한 장 한 장의 가운데를 반으로 접고, 용지를 전부 다 접으면 접은 부분의 등을 가지런하게 맞춰서 평평한 판자 등의 사이에 놓은 다음 무거운 것을 위에 올려 눌러 놓습니다. 이것은 접은 용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잘 눌러 지면 〈그림 61〉과 같이 책등에서 9밀리(三分) 정도 들어간 곳에 풀칠할 자리를 표시하고 표시를 다 한 것은 등을 가지런히 잘 맞추어서 〈그림 62〉와 같이 한 장씩 풀칠

을 합니다. 풀칠이 끝난 것은 평평한 판자 사이에 놓고 무거운 것을 올려 잘 건조시킵니다. 건조하여 本紙가 가라앉은 것은 폭의 치수를 결정해 종이 자르는 칼로 등을 제외한 삼면을 잘라내고 天地는 재단하지 않고 표지를 붙입니다.<sup>16)</sup>

호접장(접엽장)에서는 이웃한 면의 하단에 풀칠하여 붙여 나가야 한다. 만일 총30장의 서적이라고 하면 각 면 사이의 29곳에 풀칠을 해야 한다. 거기에 표지도 더해진다. 호접장은 판면을 인쇄된 상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풀칠하는 횟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한 장씩 풀을 붙여 나가는 시간과 풀이 마를 때까지의 시간, 그 만큼의 시간과 품이 들어가는 것이다. 호접장은 어떤 의미로는 여유로운 시대의 장정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고서의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분께 여쭈어 본 바로는 풀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1, 2주간 정도 눌러 놓아야 한다고 한다. 특히 서적 가운데 부분의 풀칠이 잘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인쇄 제본을 끝내고 나서 1, 2주 정도 재워 두어야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의 손실이다. 원대에 시작된 포배장도 가제본하여 거기에 표지를 붙이는 것이지만 표지는 풀로 붙이므로 결국 호접장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게 된다.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북송판 「通典」의 판심은 「책수/권수/장수」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각 책마다 장차를 달았다. 각 책에는 대개 5권씩 들어 있으며 제1책에는 그 중 「通典序」가 제1장의 앞뒷면, 권수의 「通典卷第一」이 제2장의 앞면, 권1의 卷尾가 제10장 뒷면, 권2가 제11장 앞면부터 시작되어 제21장 앞면까지(第二十一葉의 뒷면은 계선만), 권3이 제22장 앞면부터 시작되는 식이다. 여기에서는 ‘책’이 판심에 처음부터 인쇄되어 있다. 즉 이 책을 만들려고 생각했을 때부터 몇 책으로 장정할지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권수를 조절해서 장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선장본의 경우 2책을 합본해 1책으로 하는 등의 일이 자주 있는데 이는 원래 책이라고 하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호접장의 서적에 있어서 ‘책’이 기록되어 있던 것은 어쩌면 각 엽을 풀칠해서 붙여 버리는 그 고정성에 그 이유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6) 遠藤謙之輔, 1996 「粘葉裝」『古文書補修六十年』, 汲古書院.

확실히 선장한(실로 묶은) 서적은 예전부터 있었을지 모른다. 다만, 이 선장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이 명대 중반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명대 말에 이러한 장정이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기술한 바와 같은 호접장의 장정 특히 그 풀칠 공정에 시간이 걸리는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인쇄가 끝난 종이를 반으로 접는다는 점에서는 인쇄면을 안쪽으로 할 것인지 바깥쪽으로 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호접장도 선장도 같은 형태이다. 그렇게 해서 반으로 접은 종이를 필요한 페이지만큼 쌓아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종 이를 꼬 끈으로 가고정한 다음 다시 표지를 붙이고 실로 묶는다. 그러면 선장의 경우는 끝으로 곧장 출하할 수 있다. 선장에는 풀칠 공정이 거의 없어 풀칠한 곳을 말릴 시간이 필요 없다. 선장은 제본 공정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보급된 것은 아니었을까. 즉 이 시기에 이르러 제본작업의 고속화와 출판의 스피드 업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살피면, 명대 중기부터 인쇄되는 문자의 자형이 이른바 명조체가 된다. 다케무라 신이치(竹村眞一)의 『명조체의 역사(明朝体の歴史)』에 따르면, 명조체가 나타난 것은 정덕에서嘉靖 연간에 걸친 시기의 일이라고 한다.<sup>17)</sup> 기하학적인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몰개성적인 명조체는 판목을 조각하는 작업의 신속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장의 판목을 여러 명의 직공이 분담해서 판각하는 분업화의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다. 또한 명판의 판식에 있어서는 문자의 크기가 통일되어 문자가 곧 사각의 틀 안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또한 판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보인다.

장정에 있어서의 선장, 글자체에 있어서의 명조체, 판식에 있어서의 문자 크기의 규격화, 각공의 분업 체제, 이것들은 모두 명말의 서적 출판의 대량화와 고속화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와 하나로 연결된 현상이며, 명대에 서적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선장이라고 하는 장정법이 개발된 배경에는 ‘필요’가 있었다. 그 ‘필요’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때까지보다 더 많은 서적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세상에 내보내야 하는 변화이다. 명말에는 그 이전과 비교해서 폭

17) 竹村眞一, 1986 『明朝体の歴史』, 思文閣出版.

발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대량의 서적이 출판되었다. 장정의 변화는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 현상의 배후에는 서적을 둘러싼 대량화, 고속화라고 하는 큰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책의 형태, 선장(線裝), 보급, 중국, 명조(明朝)

투고일(2015. 11. 9), 심사시작일(2015. 11. 17), 심사완료일(2015. 12. 11)

〈Abstract〉

Spread of the Stitched Book Binding and its Background in China

Yasushi OKI \*

The form of books changed from the roll(*juanzi*) to bound volume(*cezi*) with the spread of printing in the Northern Song period in China. However, the form of bound volume was not stitched binding which is the most popular binding nowadays, but butterfly binding(*hudie zhuang*) at the beginning. We can confirm *Quanxiang Pinghua* printed in the Yuan dynasty, fourteenth century was bound with butterfly style, because its illustration on the top of one leaf is joined together, yet the illustration of *Xixiangji* printed in the mid-Ming dynasty, fifteenth century were not. The form of *Xixiangji* in the mid-Ming must be wrapped-back binding(*baobei zhuang*) or stitched binding. We can see the way of binding had changed from butterfly to stitched binding until the mid-Ming period. Every leaf should be pasted for butterfly binding and it took about two weeks to dry the glue up. On the other hand, as they did not need glue, they could market the book as soon as the books were printed and bound. In the end of the Ming dynasty, book printing was so flourished and demand and supply for the books increased more than ever before. Stitched book binding was born by this unprecedented book printing boom in the Ming dynasty.

**Key Words :** Form of Books, Stitched Book Binding, Spread, China, the Ming dynasty

---

\* Professor,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The University of Tokyo.